



코리안 빅리거들 새 시즌 준비 돌입

류현진·김광현 스프링캠프... 투·포수조 공식 훈련
최지만 대형 타이어 끌기·김하성 라커룸 사진 공개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 한국 출신 메이저리거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본격적인 새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세인트루이스 등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15개 구단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 스프링캠프 시설에서 투수·포수조 첫 공식 훈련을 진행했다.

토론토 등 13개 구단은 19일, 뉴욕 메츠와 미네소타 트윈스는 20일부터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한국 출신 메이저리거 중에선 김광현이 가장 먼저 공식 훈련에 참여했다.

그는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로저던 스프링캠프 시설에서 구슬 땀을 흘

렸다. 그는 훈련 첫날 화상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류현진은 19일부터 공식 훈련에 돌입한다. 그는 플로리다주 더니든 시설에서 투·포수조 훈련에 참가한다.

류현진은 최근 해당 시설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했으며 18일엔 소집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

아수인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은 다소 늦게 공식 훈련을 소화한다.

MLB는 컨디션을 먼저 끌어올려야 하는 투·포수조 훈련을 시작하고 5일 정도 후에 야수들이 합류한다.

김하성은 23일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콤플렉스에서 구단 야수조 첫 스프링캠프 훈련을 받는다.

올 시즌 빅리거에 대비하는 김하성은 일찌감치 미국에 입국해 개인 훈련을 소화했다. 그는 17일 스포츠콤플렉스 클럽하우스에 있는 본인의 라커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지만도 미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개인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18일 미국 현지 일반 도로에서 대형 타이어를 몸에 묶은 뒤 뛰어가는 훈련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소개하기도 했다.

탬파베이 야수조 스프링캠프는 24일에 시작한다.

텍사스 레인저스와 스플릿 계약을 한 양현종은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했다. 텍사스 투수·포수조 스프링캠프 훈련은 18일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에서 시작했다.

스프링캠프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양현종으로서선 애가 타는 상황이다. 한편 AP통신은 MLB가 엄격해진

방역 수칙 속에서 스프링캠프 훈련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선수, 코치, 팀 관계자는 전자 추적 밴드를 손목에 착용하고 훈련 시설에 입장해야 한다. 외부인의 접근은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MLB 사무국은 선수들에게 스프링캠프 소집일 전 5일동안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선수들은 개인 훈련 등 필수적인 활동에 한해서만 외부 활동을 했다.

아울러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에도 의료, 훈련, 필수 용품 구매 등 꼭 필요한 활동을 제외하면 거주지에 머물러야 한다.

외식 등 활동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훈련 시설 내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실내에서 모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AP는 "비디오 분석실 등에서 3~4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모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 이름으로 개명 박서진(왼쪽)과 김송연.

연합뉴스

KLPGA 회원 11% 개명 신청

성적·이미지 등 다양한 이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전체 회원 2693명 중 297명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것은 개명 절차를 밟은 회원의 비율이다.

KLPGA 투어 관계자는 "정회원, 준회원 등 전체 회원 26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7명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름을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비율로 따지면 11%나 된다. 일반인의 개명 비율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 회원의 11%나 이름을 바꾼 것은 높은 비율이다.

KLPGA가 소개한 주요 개명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점프 투어 2차전과 7월 드림투어 10차전에서 연달아

우승한 정세빈(20)은 원래 정유진에서 이름을 바꿨다.

또 박서진(22)은 2019년 박교린이라는 이름으로 신인 시절을 보냈다. 그해 6월 드림투어 1차전 우승을 차지했고 2020년 9월에는 제9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오픈에서 정규 투어 정상에도 올랐다.

이렇게 두 번이나 우승하고도 이름을 바꾼 그는 "사주를 봤는데 선수 생활과 은퇴 후까지 장기적으로 고려해 받은 좋은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김송연(24)은 '김혜선'이라는 등류명으로 2017년 SK핀크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을 제패했고 이후 이름을 바꿨다.

김송연으로 나온 2020시즌 그는 드림투어 7차전 우승과 함께 올해 정규 투어 시드권을 확보했다.

프로야구 등록 선수 올해 투수만 51.5%

올해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등록 선수는 작년보다 22명 증가한 610명으로 집계됐다.

KBO 사무국은 2021년 각 구단의 소속 선수 명단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우승팀인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많은 64명씩 등록했다.

두산 베어스(56명)와 키움 히어로즈(58명)의 등록 선수가 최소 1, 2위를 다했다.

포지션별로 살펴보면, 투수가 314명으로 전체 선수의 51.5%를 차지했다. 내야수 144명(23.6%), 외야수 102명(16.7%), 포수 50명(8.2%) 순이었다.

신인 선수는 전체 선수의 8.4%인 51명이다.

2017년 이정후(키움), 2018년 강백호(kt wiz), 2019년 정우영(LG 트윈스), 2020년 소형준(kt)의 사례를 볼 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입단한 새내기들이 5년 연속 신인상 수상의 계보를 이을지 주목된다.

전체 소속 선수 등록 숫자는 늘었지만, 코치는 13명 줄어 247명이 올해 1, 2군을 누빈다. LG가 가장 많은 30명, 키움의 가장 적은 17명의 코치를 등록했다.



공을 향한 집념 18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 리버풀의 2020-2021 EPL 16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카일 워커와 에버턴의 리차리슨이 볼을 다투고 있다. 이날 맨체스터 시티는 3-1 승리로 12연승을 달성하며 2년 만의 왕좌 탈환을 향한 '폭풍 질주'를 이어갔다. 맨체스터 시티는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승점 격차를 10점으로 벌리고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재계약 얘기 부적절" 손흥민 회견서 피력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잉글랜드)의 선수 대표로 기자회견에 나선 손흥민(29)이 재계약 질문에 말을 아꼈다.

손흥민은 19일 오전 2시 55분(한국 시간) 예정된 볼프스베르거(오스트리아)와의 2020-2021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 원정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계약 질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11일 에버턴과의 FA컵 16강전에서 연장까지 120분을 소화하고, 14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리그 경

기에서도 풀타임을 뛰었다.

손흥민은 "이미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경기장에서 항상 행복하다. 힘들어도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 선수들 다 마찬가지로 '저'라며 '피곤하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피곤할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Utd, 수비수 정우재와 재계약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가 측면 수비수 정우재(29·사진)와 재계약했다.

2014년 성남 FC, 2015년 충주 험멜, 2016년 대구 FC에서 뛰던 그는 2019년 제주에 합류했다.

첫해엔 무릎 십자인대 부상 여파로 많이 뛰지 못하고 팀도 강등됐으나 지난해 기량을 회복하며 K리그 2 21경기에 출전, 3골 4도움을 올려 K리그2 우승과 승격에 큰힘을 보냈다. 연말 시상식에선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우재는 "지난해 남기일 감독님의 믿음 속에 강등의 아픔을 딛고 더 발전할 수 있었다"며 "제주 유니폼을 계속 입고 K리그1 무대에 돌아가게



돼 기쁘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니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http://www.cheilsa.co.kr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광양 매입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영업시간: AM9시~PM9시 일요일입니다 **NAVER** **제일사** **광양**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6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콤비	60만	30만
고급	"	40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5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1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 33년전통, 고객 체형에 맞춤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님의 모시겠습니다."

만배성 한정식



양만배 조리가능장(Master Chef)이 어머니의 손맛처럼 만배(萬倍)로 정성(精誠)을 다하여 마련한 만배성한정식(萬倍誠韓定食)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예약문의 Tel. 712-6800
제주시 아연로 484-9(아라1동)

1층 만배성 밥집(10:00 ~ 15:00)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피로하고 지친분들을 위해 만배성 밥집만의 기력회복에 좋은 신선하고 건강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1층 돌잔치 예약 받습니다 -- 1인 15,000원)

식사류		일품요리	
가마솥영양밥+불고기	12,000원	도가니탕	12,000원
가마솥육회비빔밥+불고기	12,000원	소머리곰탕	8,000원
가마솥야채비빔밥+불고기	9,000원	차돌원장찌개	8,000원
궁중해장국효종갱	12,000원	소불고기	10,000원
왕갈비곰탕	12,000원	도미머리미역국	10,000원
인삼고리곰탕	15,000원		

2층 만배성한정식 코스요리(11:00 ~ 22:00)

상견례, 칠순, 팔순, VIP접대, 각종 연회 및 모임 등을 행사 취향에 맞는 메뉴를 마련하였습니다.

특A : 1인 70,000
A : 1인 50,000
B : 1인 40,000
C : 1인 30,000

점심특선 한정식 1인 20,000

※ 모든 요리에는 갖지은 **즉석가마솥밥**이 제공됩니다.